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 수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 주일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 9월 24일 주일 예배 후 하반기 연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김준희, 권용미 집사 닥).

[알림]

- 공동체 성경읽기 365 플랜 제 37 주 차
- 9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프린트물, 교회 홈페이지).
- 성경 아카데미, '목적이 이끄는 삶'이 16일(토)에 시작됩니다.
- 7/8월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 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증 및 후원을 받습니다(성경, 신앙서적 등).

[교우동정]

- 김정현 집사 미국 및 한국 방문(11일)
- 전상일, 박선영 집사 한국 방문(17일)

[중보기도(기도제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회복을 위해 : 김정현, 김현희, 장문수(장은정), 장정윤, 장믿을 어린이
- 9월의 기도제목, 대한민국과 캐나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9월 기도제목

-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의 영적, 질적, 수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 ◆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
- ◆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위해
- ◆ 자녀들의 신앙, 인격, 건강, 학업, 만남, 비전을 위해
- ◆ 각종섭 교육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
- ◆ 김창섭, 양영창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가정과 자녀를 위해
- ◆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 ◆ 9월의 목회일정(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성경 아카데미, 리더 양육, 목자 교육, 목장 모임, 문화사역)을 위해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 Zoom
어린이예배	오후 2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오후 1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저녁 7시	본당 / Zoom
성경아카데미	해당 요일에	교회 / Zoom
목장모임	목장 A	지정 시간 / 장소
	목장 B	지정 시간 / 장소

9월 목회계획 (기도의 달)

8월 30일-9월 1일	2023 에드먼튼 코스타
9월 16일-매주 토요일, 7주	성경 아카데미, 목적이 이끄는 삶
9월 24일	온 가족 한 마음 예배(애찬식) 하반기 연합 목장 모임(김준희, 권용미 집사 닥)
9월 25일-27일	미주 남침례 한인교회 캐나다 지방회 총회, 밴쿠버
9월	리더 양육, 목자 교육, 목장 모임, 문화 사역

9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친교
3일	김영순	김정현	여선교회
10일	김효종	류성주	김정현
17일	김준희	이광배	여선교회
24일	권용미	김현희	김영순

지난 주 헌금 통계

(E-transfer: edmkbc@gmail.com)

항목	통계
십일조	920.00
감사헌금	120.00
주정헌금	732.00
선교헌금	20.00
기타헌금	320.00
계	2,112.00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권성범
반 주 : 김안나
방송담당 : 김태빈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두고 돌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라를 세우소서 이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창 3:2)

2시

*경배와 찬양	7.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14.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3.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23. 임재	다같이
*예배의 부름	시 148:1-4	인도자
*찬송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같이
대표기도		김효종 집사
성경봉독	히 1:1-2, 4:14-16, 12:1-2	류성주 집사
말씀선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성범 목사
결단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주기도송		다같이
*축도		권성범 목사

*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목회 칼럼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우리 교회 수련회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평생에 잊지 못할 수련회였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진 첫 장년 수련회였고, 한 주에 설교할 원고를 5편 준비해야 했던 수련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2박 3일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님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단 한 일 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신뢰는 사랑의 기초이자 바탕이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좋은 토양과 같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좋은 토양 위에 변화와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심기면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잊지 못할 은혜로운 수련회였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 짐을 내려 놓기 위해 1시 50분 즈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오늘 교회에 예배 없나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운 사이, 교회를 찾은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그 분들을 만나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여행 차 에드먼튼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손하게 교회 사정을 말씀드릴 때, 한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분들은 자스퍼에서 장을 보러 잠시 방문한 자매님들이었는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교회에 예배 없나요?”

‘이게 뭐지?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날, 그것도 하필 오늘 같은 날 교회를 찾아오다니’

“오늘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앞서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며 가시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떠나간 뒤, 사무실로 짐을 옮기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 앉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았지?’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교회는 닫혀 있었고, 목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에 제 영혼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돌려 보낸 것이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코스타를 진행하는 바쁜 일정 중에 제 육체가 힘든 것보다 저를 더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제 마음의 자책감과 후회였습니다.

‘그 때, 교회의 문을 열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펴 하나님님의 말씀을 나누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 일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힘쓸 사역은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합시다. 사랑과 섬김의 종이 되어 영혼을 섬깁시다.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성경 퀴즈

[잠언 28:1-전도서 12:14] 날짜: 이름:

▣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어떻게 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나요? (잠 28:)

2.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은 무엇인가요? (잠 30:)

3.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누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잠 31:)

4. 전도자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전 1:)

5.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나요? (전 3:)

6.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어찌할지니라”고 했나요? (전 5:)

7. 사람의 결국이 그러하므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전 7:)

8. 조용히 들리는 무엇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고 했나요? (전 9:)

9. “지혜자의 입의 말은 ()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 (전 10:)

10.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찌하신다고 했나요? (전 12:)